

八卦의 인체 配屬에 대한 새로운 연구 - 河圖 洛書를 중심으로-

김경철* · 신순식 · 김 훈 · 김이순¹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1: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Latest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Eight Trigrams in Human Body

Gyeon Cheol Kim*, Soon Shik Shin, Hoon Kim, Yi Soon Kim¹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Dongeui University

To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eight trigrams (八卦) in human body being based on based the number of HADO(河圖)-NAGSEO(洛書). Being based on the number of HADO(河圖)-NAGSEO(洛書) and the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human being organs (five-Jang organs (liver, heart, spleen, lung and kidney), five organs (ear, eye, mouth and nose), provisional namely six entera for the process on intake, digestion, excretion of food (mouth, stomach,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rectum, anus) are assigned eight trigrams (八卦). Eight trigrams(八卦) are attached to the based on the number of HADO(河圖)-NAGSEO(洛書): 1-GEON(乾), 2-TAE(兌), 3-LEE(離), 4-JIN(震), 9-SON(巽), 6-GAM(坎), 7-GAN(艮), 8-GON(坤). And Eight trigrams(八卦) are attached to the human being organs (five-Jang organs (liver, heart, spleen, lung and kidney), five organs (ear, eye, mouth, nose, anus) : 1-GEON(乾)-left kidney-left ear, 2-TAE(兌)-right heart-mouth, 3-LEE(離)-left liver-left eye, 4-JIN(震)-right lung-right nose, 9-SON(巽)-left lung-left nose, 6-GAM(坎)-right kidney-right ear, 7-GAN(艮)-left heart-anus, 8-GON(坤)-right liver-right ear. Eight trigrams(八卦) are attached to the provisional namely six entera for the process on intake, digestion, excretion of food : the air(GEON 乾), the month(TAE 兌), the stomach(LEE 離), the small intestine(JIN 震), the large intestine(SON 巽), the rectum(GAM 坎), the anus(GAN 艮), the excrements(GON 坤). The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means immutable order naturally. The process of the human being organs(five-Jang organs, five organs and six entera's digestion) is also unchangeable in region and program. Therefore we can set up the five-Jang organs, five organs and the process of six entera's digestion as the category of observation on the basis of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and then we can arrange eight trigrams(八卦) on the five-Jang organs, five organs and the process of six entera's digestion.

Key words : eight trigrams (八卦),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次序圖)

서 론

醫易會通의 연구 방법론으로 周易의 思想과 範疇 體系를 이용하는 醫易學은 특히 八卦를 이용하여 인체의 臟腑에 대한 해석과 활용은 그 主流를 이루고 있다¹⁾. 이는 八卦가 周易의 핵심이고, 臟腑도 韓方 藏象論의 입장에서 인체의 생리활동의 중추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八卦의 인체 배속은 醫家마다 학설이 紛紛하여²⁾ 醫易의 이론 전개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은 임상 활용에 어려움을 끼

치고 아울러 후학들의 연구에도 지장이 되고 있다. 의역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혼란은 바로 의역회통의 이론 전개에서 八卦의 인체 배속의 원리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팔괘 배속의 기본 태도에 해당하는 관찰의 기준과 論議의 範疇에 대한 명확한 설정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河圖 洛書는 周易 음양론의 기본 구도를 나타내는 도표로써, 易學 활용의 기본적인 기준 잣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팔괘의 인체 장부 배속도 이런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 이에

* 교신저자 : 김경철, 부산시 진구 양정 2동 산 45-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imkc@deu.ac.kr, · Tel : 051-850-8653

· 접수 : 2006/10/02 · 수정 : 2006/10/30 · 채택 : 2006/11/27

1) 백진웅, 장부의 팔괘배속에 관한 연구, p. 173

2) 윤창열, 장부와 팔괘배합에 관한 연구, p. 217

3) 김정규 윤창열, 팔괘의 인체배속과 인단화적인 운용, p. 113

저자는 八卦의 인체 장부 배속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太山 선생의 八卦 配屬⁴⁾의 考察을 통하여 하도 낙서의 數 배치와 복희팔괘차서도(복희팔괘차서도를 기준으로 오장, 기관, 소화과정의 배속 관계에 대한 다소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대상 및 방법

周易의 伏羲八卦次序圖에 나타나는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八卦와 인체의 五臟, 소화기, 耳目口鼻肛門 등의 器官 및 河圖와 洛書의 1, 2, 3, 4, 5, 6, 7, 8, 9, 10의 數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河圖 洛書의 1, 2, 3, 4, 5, 6, 7, 8, 9, 10의 數를 기준으로 복희팔괘차서도의 八卦를 再配屬하였으며, 또한 인체 오장, 기관, 소화기의 기능을 기준으로 삼아서 配置함으로써, 팔괘와 인체 장부의 배속관계를 河圖 洛書의 數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1. 河圖, 洛書의 數에 대한 伏羲八卦次序圖의 배속

河圖, 洛書 數를 중심으로 伏羲八卦次序圖⁵⁾의 팔괘를 배속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Being based on the number of HADO(河圖)-NAGSEO(洛書), the assignment of eight trigrams (八卦) in BEOK-HEE's diagram of eight trigrams order(伏羲八卦次序圖)

八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河圖·洛書 數	1	2	3	4	9	6	7	8

2. 河圖, 洛書에 대한 五臟과 器官의 配屬

河圖, 洛書 數를 중심으로 인체의 오장, 기관, 소화기를 배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Table. 2)

Table 2. Being based on the number of HADO(河圖)-NAGSEO(洛書), the assignment of five-Jang organs, five organs and the process of six enter'a digestion

八卦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河圖·洛書 數	1	2	3	4	9	6	7	8
五臟	左腎	右心	左肝	右肺	左肺	右腎	左心	右肝
器官	左耳	口	左目	右鼻	左鼻	右耳	肛	右目
六腸(소화배설)		口	胃腸	小腸	大腸	直腸	肛門	

고찰

八卦의 인체 장부에 대한 배속은 靈樞 九宮八風論⁶⁾에 기본 원리가 나타난 이후에 諸家의 學說이 통일되지 못하고 의견이 분분하다⁷⁾. 중국 西漢의 京房易에서 八卦를 五行에 배치한 장부의 팔괘 배속 이론 이후, 역대 의가의 추종과 부분적인 비판도 역시 그 의견이 일정하지 못하여⁸⁾ 후학의 연구에 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이런 혼란은 인체 臟腑와 八卦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八卦와 인체 臟腑 배속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五行의 숫자와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체 장부의 팔괘 배속에 대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하여, 백⁹⁾은 우선 京房易에서 문자의 동일성을 의미의 동일성으로 파악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으나, 그도 역시 五臟과 六腑를 혼잡하여 八卦에 배속하고자 함으로써¹⁰⁾, 인체 臟腑와 八卦 및 五行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생명현상 발현에서 서로 간에 작용상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으므로 비록 五臟과 六腑, 經絡이 인체의 생명현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로 다른 範疇의 類別로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八卦의 인체 배속에서 인체의 五臟과 六腑, 經絡 등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인체와 八卦 배속을 연구하여야 무리가 없으며 또한 다른 신체 부분의 八卦 배속도 마찬가지라고 제안하였다¹¹⁾. 더불어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차별상의 물질세계의 관찰 대상은 관찰의 입장에 따라 음양의 판단이 다르게 되므로, 그 관찰의 기준과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해 두지 않으면 혼란이 오게 된다. 이런 陰陽의 屬性을 구체화하여 관찰하고 설명하는 태도와 연구방법은 이미 尹이 主唱하였던¹²⁾ 바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八卦의 인체 配屬에 대한 연구도 관찰하고자 하는 기준과 논의의 범주를 설정하는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저자는 八卦의 인체 장부 배속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써, 하도 낙서의 數 배치를 기준으로 복희팔괘와 오장, 기관, 소화기의 배속 관계에 대한 다소의 知見을 얻었다.

1. 河圖 洛書 數를 기준으로 五臟과 器官에 대한 八卦 配屬

1) 河圖 洛書 數와 伏羲八卦次序圖

河圖란 宇宙에 있는 모든 陽太極體의 構造를 象과 數로 나타낸 圖를 表示한 것이다. 이처럼 河圖之圖는 양태극을 설명하는 도표로 太陽, 만물의 陽物(숫컷), 男子, 種子에 대한 내용이다. 一 二三四五는 陽中陽이고 六七八九十은 陽中陰이다. 河圖의 象을 數字로 表示해나가면, 一과 六이 陽陰으로 配가 되고, 二와 七이 陰陽으로 配가 되고, 三과 八이 陽陰으로 配가 되고, 四와 九가 陰陽으로 配가 되고, 五와 十이 陽陰으로 配가 되어 中이 되는 것이다. 또 數에 八卦를 넣어보면 一은 乾이 되고 六은 坎이 되어 配가 되어 乾과 坎이 一六 火가 되며, 二는 兌가 되고 七은 艮이 되므로 兌艮이 配가되어 二七 水가 되며, 三은 離가 되고 八은 坤이 되어 離坤이 配가되어 三八 木이 되며, 四는 震이 되고 九는 巽이 되어 震巽이 配가되어 四九 金이 된다. 여기서 흔히 들 巽을 복희팔괘차서도에서 五로 여기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순서적인 측면을 보는 형식논리의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五와 十은 중앙 土로써 팔괘의 배속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八卦가 陰陽 偏差의 分列相임을 상기해보면 자명한 사실이 된다. 五는 乾兌離震이 들어있는 陽의 덩

4) 강호원, 태극체질처방전, p. 794

5)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周易(金), 震文堂, p. 5

6) 홍원식, 정교황제내경영추, pp. 328-330

7) 윤창열, 앞의 논문, pp. 217-219

8) 백진웅, 앞의 논문, pp. 173-177

9) 백진웅, 앞의 논문, pp. 177-186

10) 백진웅, 앞의 논문, pp. 186-196

11) 김경철, 복희차서도에 입각한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배설과정에 대한 팔괘 배속

12)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pp. 11-65

어리고 十은 巽坎艮坤이 들어있는 陰의 덩어리이며, 五의 陽과 十의 陰이 配가되어 陽太極體를 이루는 中이 된다.

洛書는 宇宙에 있는 모든 陰太極의 構造를 象과 數로 나타낸 圖로 表示한 것으로서, 宇宙陰太極이 造化生生하여 進化變遷하는 順理의 理致를 現象해 놓은 것이다. 洛書之圖는 陰太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구 달 행성, 만물의 陰物(암컷), 女子 등이 여기에 속한다. 洛書之圖 陰太極은 五中이 있고 八方으로 象數가 배치되어 있다. 一三五四는 陰中陽이고 六七八九는 陰中陰이고 一三七九는 正四方에 배열하고 二四六八은 正間方에 있다. 洛書之圖에서 一은 北이고, 六은 北西間이고, 九는 南이고, 四는 南東間이며, 三은 東이고, 八은 東北間이며, 二는 西南間이고, 七은 西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洛書의 象을 陰陽으로 數字로 表示하면, 一과 六이 陰陽으로 配가 되고, 四와 九가 陰陽으로 配가 되고, 三과 八이 陰陽으로 配가 되고, 二와 七이 陰陽으로 配가 되는 것이다. 洛書陰太極에 五는 나타나되 十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자에 비견되는 陽太極體는 十이라는 陰太極의 덩어리가 달려있고, 여자에 비견되는 陰太極體는 十이라는 陰太極의 덩어리가 달려있지 않다. 數字와 팔괘를 넣어보면 一은 乾이고 六은 坎이되어 配가 되고, 四는 震이 되고 九는 巽이되어 配가 되고, 三은 離이고 八은 坤이되어 配가 되고, 二는 兌이고 七은 艮이 되어 配가 되고, 五는 陰太極의 內宮이되는 것이다.

伏羲八卦次序圖는 태극에서 음양, 사상, 팔괘, 육십사괘로 분화되어 나가는 生生之道를 나타내고 있으므로¹³⁾ 次序圖라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불변의 순서, 성질, 속성을 가지는 대상을 관찰할 때, 그 팔괘 배속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인체의 오장은 전일적인 생명력의 주체적인 五種分別相이므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불변의 속성으로 그 역할을 각각 담당하므로 복희 차서도의 기준과 순서로 오장과 기관에 대한 팔괘 배속이 가능하게 된다.

2) 오장과 기관의 배속

河圖의 數字에 오장과 기관을 배속하면, 一과 六이 陽陰으로 配가 되어 五行의 水가 되므로 一乾에 左腎 左耳가 그리고 六坎에 右腎 右耳가 배치된다. 二와 七이 陰陽으로 配가 되어 오행의 火가 되므로 二兌에 右心 口가 그리고 七艮에 左心 肝이 배치된다. 여기서 口와 肝은 상부가 열려있는 二兌의 象과 하부가 벌여져있는 七艮의 象을 취상하여 각각 입과 항문으로 연계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食物을 마구 쪼개지면서 뒤섞이게 하는 입의 작용과 팔약근의 힘을 쓰는 항문을 五행의 火의 기운으로 취상 가능하다.

三과 八이 陽陰으로 配가 되어 五행의 木이 되므로 三離에 左肝 左目이 그리고 八坤에 右肝 右目이 배치된다. 四와 九가 陰陽으로 配가 되어 五行의 金이 되므로 四震에 右肺 右鼻가 그리고 九巽에 左肺 左鼻가 배치된다. 또한 五와 十이 陽陰으로 配가 되어 中土가 되므로 脾 舌이 배치된다. 즉, 팔괘에 肝心肺腎의 四臟이 그리고 중앙 五와 十에 脾가 배치되므로 하도낙서의 數, 복희팔괘차서도의 수정 재배치된 數를 기준으로 오장을 배속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게 된다.

13) 강호원, 우주양음조화탈해, p.11

2. 河圖 洛書 數를 기준으로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에 대한 八卦 配屬

1) 복희팔괘차서도와 소화과정의 범주와 八卦 배속

인체 생명 유지는 코의 공기 흡입과 입의 食物 섭취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인체 상부인 얼굴의 코와 입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통로로 내려가면서 입과 더불어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입에서 항문까지의 가칭 六腸은 食物의 섭취, 소화, 영양 흡수, 배설이라는 소화 과정의 경로라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므로 음양론 관찰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同類의 範疇 또는 部門에 속하게 된다. 가칭 六腸은 內經에서 말하는 六腑와는 膽, 膀胱, 三焦의 배속 차이가 되는데, 膀胱은 소화과정의 기관이 아니며 三焦는 인체 협관계의 작용을 하고 膽은 奇恒之府로써¹⁴⁾ 순전한 소화 과정으로만 보기 힘들기 때문에 가칭 六腸에서 제외된 것이다.

伏羲八卦次序圖는 태극이 분화되어 나가는 生生之道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次序圖라는 말 그대로 선천적인 불변의 순서, 성질, 속성을 가지는 대상을 관찰할 때,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인체의 입에서 항문까지의 경로는 하나의 소화 경로로써 가칭 六腸이 되어 타고난 부위의 순서와 기능을 가지고 불변의 속성으로 그 역할을 각각 담당하므로 복희 차서도의 기준과 순서로 팔괘 배속이 가능하게 된다. 大綱은 큰 줄기, 그물, 빗줄을 말하는데, 天地 自然은 乾天으로 大綱을 삼는다. 인체에서 대강은 무엇인가. 바로 입구멍에서 똥구멍까지이다¹⁵⁾. 그 이유는 食物을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食物 소화와 영양의 흡수는 人體의 大綱으로써, 입, 위장, 소장, 대장, 직장, 항문 등의 가칭 六腸을 통한 경로로 소화 배설되고 그 영양 물질은 五臟과 각 기관에 보내져서 인체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사람은 코로 공기를 흡입하고 입으로 食物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한다. 코로 공기를 흡입하는 것은 一乾天에 해당한다. 우리는 코로 하늘의 공기를 흡입하며 입으로 食物을 저작하면서 함께 삼킨다. 코로 흡입한 공기는 호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섭취한 食物의 저작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도와 식도의 경계에 후두개가 있는 연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만약 공기와 食物의 혼합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 후두개는 정말 잘못 만들어진 구조와 기능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할 것이다. 易學的으로 우리는 하늘 乾天의 공기와 地坤에서 비롯하는 食物을 함께 먹음으로써 天地自然의 氣運을 인체에 구현하게 된다. 이처럼 三才중의 하나인 인간은 天乾의 공기와 地坤의 食物을 흡수하므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인체의 대강을 이루게 된다.

입(口)은 食物을 섭취하는 구멍으로써, 食物을 섭취하는

14) 김광중 김완희, 앞의 책, pp. 283-304

15) 강호원, 태극체질처방전, p. 794

16)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17) 이재마, 동의수세보원 장부론

18)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19)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0)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1) 강호원, 앞의 책, pp. 795-798

22) 강호원, 앞의 책, p.

것은 입속으로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다. 입에 들어간 음식은 공기와 섞여 이빨의 저작운동과 혀의 交媾작용으로 마구 쪼개지면서 뒤섞이게 되므로 음식물은 熱 氣運이 생기며 쓴 맛(苦臭味)의 상태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⁶⁾. 그 형상을 八卦로 取象하면 二兌澤에 해당한다.

위장은 음식이 혼합되어 相交되고 胃酸이 분비되어 음식을 소화한다. 위장은 그 생김새가 廣大而包容하여¹⁷⁾ 마치 주머니 형태의 항아리로 醱酵 기능을 발현하게 되므로, 그 형상을 팔괘로 취상하면 三離火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장에서 음식물이 혼합되어 뒤섞이는 상태는 마치 자연에서 바람(風 氣運)이 불어 남녀음양이 교구하듯이 하게되며, 음식물은 酸臭味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⁸⁾. 小腸은 胃에서 소화된 음식을 녹여내어 영양을 흡수한다. 그래서 小腸은 영양소의 집합 역할을 하므로 소곱창 등의 소장 자체의 맛은 구시고 맛있다. 소장은 강한 연동 운동을 하므로 八卦로 取象하면 四震雷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음식물의 영양을 흡수하기 쉬운 죽과 같은 양상으로 만드므로 그 用은 녹여내는 燥 氣運이며, 음식물은 辛臭味로 조화롭게 변한다¹⁹⁾. 大腸은 소장을 통과한 음식물의 상태를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함으로써 大便을 만들어 내므로 八卦의 選風에 해당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작용은 견고해진 金 氣運이며, 辛味로 조화롭게 나타난다²⁰⁾. 直腸은 물을 흡수하고 다소려 腎臟으로 보내며 平準하게하고 和하게해서 대변을 만들어, 신체 밖으로 대변을 보내는 준비를 하므로 직장은 六坎水로 取象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작용은 水 氣運에 比肩이며, 음식물은 鹹味로 조화롭게 변화하게 된다²¹⁾. 肛門은 괄약근으로 강한 힘을 사용하여 대변을 자르고 결단하여 땅으로 배출하므로, 항문은 八卦의 七艮山에 配屬 가능하며, 그 작용은 火 氣運에 比肩된다. 대변은 흙으로 돌아가므로 八卦의 八坤地에 해당한다. 결국 인체가 생명유지에 사용한 天地의 氣運에서 내쉬는 공기는 하늘로 날아가고(乾), 음식물의 찌꺼기인 똥은 땅으로 돌아간다(坤)²²⁾. 이처럼 입에서 항문까지의 소화과정의 하나의 통로인 가칭 六腸을 통하여 소화 흡수된 영양물질은 각 臟器로 배분되어 생명현상이 五臟과 각 器官을 위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 론

八卦의 人體 配屬에는 관찰의 基準과 논의의 範疇가 설정되

어야한다. 저자는 하도 낙서 수와 伏羲次序圖의 基準으로 人體 五臟, 器官, 消化過程을 論議 範疇로 설정하여 八卦를 배속하였다. 그 결과 하도 낙서 數와 복희차서도에 입각하여 五臟과 器官의 배치하면, 一乾에 左腎 左耳가 그리고 六坎에 右腎 右耳가 배치되고, 二兌에 右心 口가 그리고 七艮에 左心 肝이 배치되며, 三離에 左肝 左目이 그리고 八坤에 右肝 右目이 배치되고, 四震에 右肺 右鼻가 그리고 九巽에 左肺 左鼻가 배치되며, 또한 五와 十에 脾 舌이 배치된다.

음식물의 섭취, 소화, 영양 흡수, 배설 과정에 대한 팔괘 배속은 차서도의 순서에 따라서 天의 空氣에 乾을, 口에 兌를, 胃腸에 離를, 小腸에 震을, 大腸에 巽을, 直腸에 坎을, 肛門에 艮을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는 배설물에 坤을 설정 가능하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06학년도 동의대학교 교내연구비(과제번호 2006AA105)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1. 강호원, 태극체질처방전, 서울, 한가람전산, 2000
2. 강호원, 우주양음조화탈해, 서울, 광일출판사, 1991
3. 김광중 김완희, 장부학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중사, 1996
4. 김희제 校閱, 원본집주주역(전), 서울, 명문당, 1978
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영인본
6. 윤길영, 동의학의 방법론 연구, 서울, 성보사, 1983
7. 홍원식, 정교환제내경영추,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8. 김정규 윤창열, 팔괘의 인체배속과 진단학적인 응용, 대한원전의학회지, 12권2호, 1999.10
9. 백진웅, 장부의 팔괘 배속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7권1호, 2004.2
10. 윤창열, 장부와 팔괘배속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학회지, 12권2호, 1999.10
11. 김경철, 복희차서도에 입각한 음식물의 섭취와 소화 배설과정에 대한 팔괘 배속,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권 3호, 2005.6